



##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변동 원인과 시사점

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(cchung@kiep.go.kr, Tel: 3460-1184)

서 진 교 무역투자정책실 실장 (jksuh@kiep.go.kr, Tel: 3460-1156)

김 정 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(jgkim@kiep.go.kr, Tel: 3460-1093)

1.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
2. 최근의 무역수지 변동 원인
3. 향후 전망
4. 시사점

### 주요 내용

▶ 2008년 10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의 흑·적자가 교차하는 널뛰기 현상이 발생함.

-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돌입함.
- 경기침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2008년 10월 각각 7.8%와 10.3%로 급감하였으며, 11월부터는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.
  - 이는 2008년 7월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각각 35.6%, 47%이던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임.
-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월별로 흑·적자가 교차하게 됨.

▶ 최근의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급격히 반전하게 된 주요 원인은 환율급등임.

- 엔화와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절상되면서 원화가치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의 기간 동안 엔화에 비해 67%, 위안화에 비해서는 57% 평가절하된 것으로 평가됨.
  - 원화환율은 2008년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에 비해 월평균 40~53% 평가절하된 상태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음.

- 단기간의 환율급등은 수출시장에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감소율을 둔화시킨 반면 수입감소율은 오히려 확대시킴.

- 환율변동이 약 3~4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출입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점과 최근의 고환율 현상을 감안할 때 무역수지는 당분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▶ 무역수지 흑자반전은 환영, 그러나 생산 및 투자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우려됨.

-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가 수출 감소율 둔화와 수입 감소폭 확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비록 긍정적인 무역흑자는 아니지만 외환시장 및 환율 안정에는 호재로 작용함.

- 기업경기실사지수(BSI: Business Survey Index)는 2008년 4/4분기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09년 1/4분기에도 호전되지 않고 있음.

○ 특히, 설비투자 및 고용의 경우 2009년 1/4분기에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.

- 무역수지 흑자가 R&D 및 설비투자 확대에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회복을 통해 수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로의 변환이 필요함.

○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및 M&A 활성화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# 1.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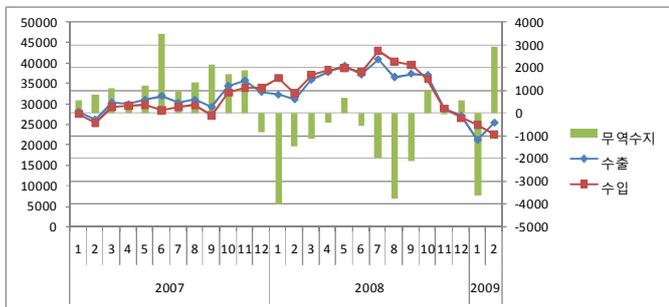
## 가. 세계경기침체로 교역액 급감

-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 4분기부터 교역액이 전방위적으로 급감하기 시작함.
- 對선진국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, 對개도국 수출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.
- 선박류와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하고 전 품목에 걸쳐 수출 감소세를 나타냄.
- 수입도 대부분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## 나. 무역수지 적자 전환 및 최근 2개월간 흑자 반전

-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던 무역수지가 2007년 12월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된 바 있으며, 이는 2008년 연간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짐에 따라 무역수지에 적자에 대한 우려가 부상함. 2009년 들어 최근에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대규모 적자와 흑자가 교차하는 현상이 발생함.
- 2009년 1월에 △33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한 이후, 2월 들어 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3월에도 40억 달러) 이상의 대규모 흑자가 예상됨.

그림 1. 최근 우리나라의 월별 수출입, 무역수지 추이 (단위: 백만 달러)



주: 수출·수입은 좌축, 무역수지는 우축.  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증가 등 선순환에 따른 긍정적 무역흑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- 최근의 무역흑자는 수출입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 감소율이 둔화된 데 기인함.
- 무역수지 흑자로의 전환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회복기의 현상과 유사하나 외환위기 당시는 수출입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와는 차이가 있음.
- 따라서 최근의 무역흑자가 추세적 반전인지의 여부는 좀더 관망할 필요가 있음.
- 무역수지가 최근 몇 개월간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널뛰기 형태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.
- 우리나라의 환율, 소득, 소비, 기업투자활동 등 수출입에 직·간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불확실성을 동반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.

# 2. 최근의 무역수지 변동 원인

-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변수들로 국내외 소득, 환율,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을 들 수 있음. 최근의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와 흑자를 기록한 데는 이들 변수가 각기 다른 시차를 두고 수출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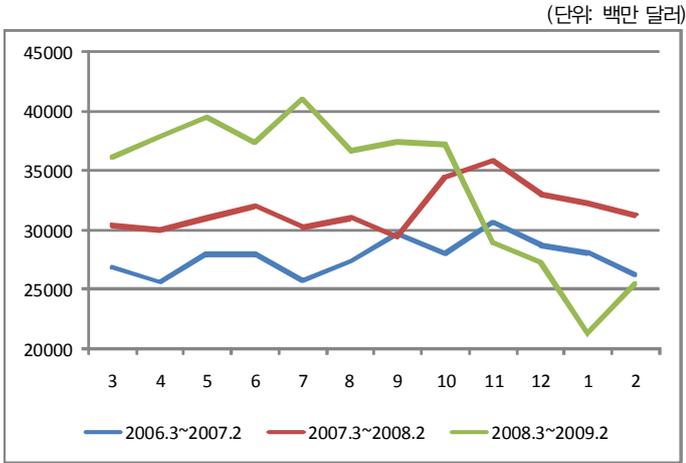
## 가. 해외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급감

- 최근의 무역수지 변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세계경기 악화에 따른 해외 수입수요의 위축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.
- 2008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, 이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2009년 1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.
- 우리나라의 수출은 2008년 10월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 이미 2006년 11월의 수출액 이하로 급감하여 2009년 1월에는 최근 3년래 최저 수준에 도달함(그림 2 참고).

1) 지식경제부 발표 3월 추정치 기준.

- 2월 들어 수출이 반등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2006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.

그림 2. 최근 3년간 월별 수출 추이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우리나라의 수출은 특히 해외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.

-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OECD 경기선행지수와 동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, OECD 경기선행지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8년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부터 악화되기 시작함.
- 최근의 우리나라 수출 감소는 세계경기, 특히 미국, EU,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악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.
-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은 해외 GDP가 1% 증가하면 약 3.6%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.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,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 시에는 수출 감소 원인으로 작용함.
- 이에 반해, 우리나라의 수입은 국내 GDP 1% 증가 시 2.1%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출에 비해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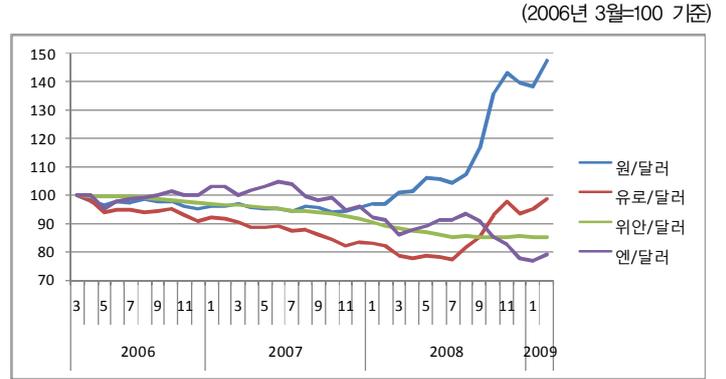
나.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급감

■ 가장 최근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요인으로 원화 가치 하락을 들 수 있으며, 특히 2008년 4분기 이후 30%<sup>2)</sup> 이상 급등한 환율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수출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
2) 2009년 2월의 원/달러 환율은 2006년 3월에 비해 48% 상승함.

- 특히 최근 위안화와 엔화가 달러화 대비 15~20% 절상됨에 따라 상대적 환율효과가 증폭됨.
-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의 기간 동안 달러당 원화 가치는 엔화에 비해 67%, 위안화에 비해서는 57% 떨어진 것으로 평가됨.

그림 3. 최근 3년간 주요 환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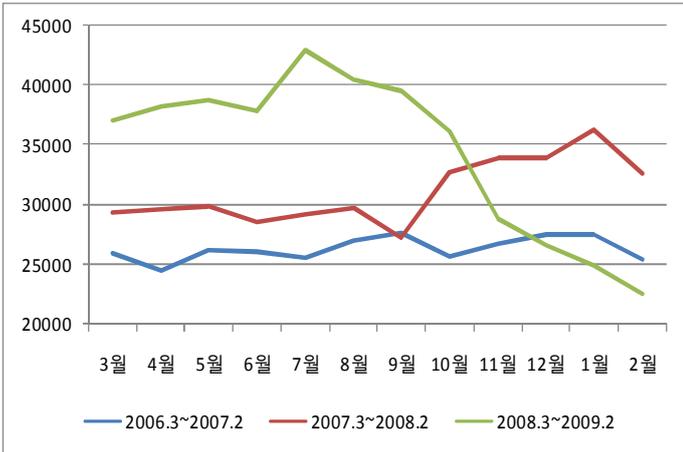
자료: Global Insight 및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필자 계산.

- 상대적 환율효과 외에도 단기간의 환율급등은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는 하는 한편, 수입 감소폭은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함.
- 환율변동의 효과가 무역수지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3~4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.
- 최근 3~4개월간 고환율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환율효과 시차를 감안할 때 별다른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이 없다면 당분간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그러나 이는 환율급등에 따른 단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 다시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져 월간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존함.
-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품수출의 환율 탄력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환율이 상품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나, 최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은 환율급등 폭이 매우 컸음을 반영함.
- 상품수출과는 달리 상품수입의 환율 탄력성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됨.

- 우리나라의 수입은 2008년 7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.
- o 특히 10~11월에 급감하기 시작한 수입은 12월이 되어서는 2006년 수준 이하로 하락했으며, 여전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.

그림 4. 최근 3년간 월별 수입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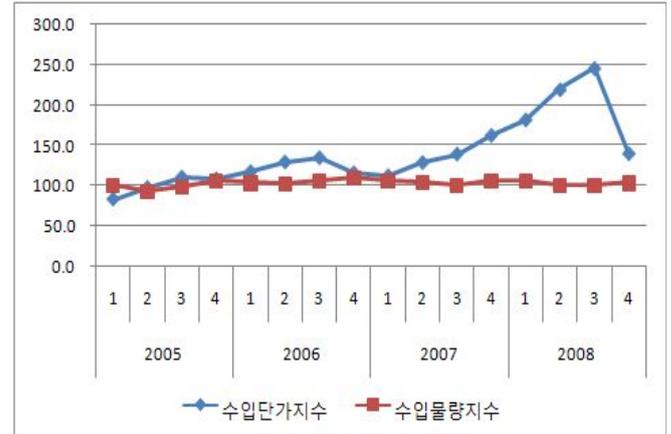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1월의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로 나타난 것은 시차로 인해 아직 환율효과가 나타나기 전, 해외소득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.
- 2009년 2월 이후부터 환율급등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무역수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1월의 수출 급감에는 설 연휴 등 조업일수의 감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음.

**다. 유가 및 원자재 등의 국제가격**

-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무역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, 반도체는 국제 가격 하락으로 고전함.
- 원유의 수입물량지수와 수입단가지수를 살펴보면,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원유수입물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원유 수입액이 증가함.
- 주요 원자재 가격도 철광석, 동광석, 연광석, 합금철, 슬랩, 후판 등을 중심으로 급등하여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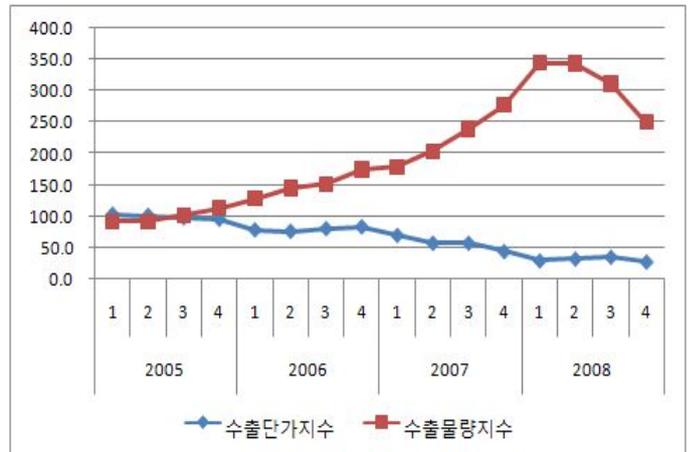
그림 5. 원유의 분기별 수입물량지수와 수입단가지수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.

- 이들 원자재의 수입가격지수는 2005~2008년간 약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.
- 반도체의 경우 수출물량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, 수출단가 하락이 수출액 감소를 주도함.

그림 6. 반도체의 분기별 수입물량지수와 수입단가지수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.

**라. 품목별 요인**

- 2009년 1~2월의 무역수지 흑·적자 교차현상은 주요 수출품목의 상승세 반전과 수입액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데 기인함.
- 수출에서는 선박류의 상승세 반전과 자동차, 철강판 등 일부 수출품목의 선전이 두드러짐.<sup>3)</sup>

3) 전월대비 수출 증가율 기준.

표 1. 품목별 수출증가율

(단위: %)

	2008			2009		
	10	11	12	1	2	3(잠정)
총액	8	-19	-18	-34	-18	-14
반도체	-1	-22	-6	-22	20	-29
	-26	-44	-50	-47	-41	-33
자동차	-14	-13	-28	-56	-33	-48
	41	1	-27	-41	24	-52
무선통신기기	14	-25	-20	-22	1	-23
	16	-35	-31	29	8	-36
컴퓨터	-38	-53	-58	-58	-45	-38
	-5	-26	-15	-1	15	-28
선박 등	120	32	68	15	50	137
	12	-11	37	-50	69	-26
석유제품	29	-27	-41	-37	-38	-48
	-23	-32	-21	-13	5	-33
합성수지	-7	-35	-26	-34	-25	-15
	-18	-99	8	-4	16	-27
영상기기	-35	-55	-53	-47	-36	-28
	-20	-42	-5	16	21	-24
철강관	48	2	-11	-27	-23	-32
	-8	-99	-5	-14	7	-44
의류	-11	-28	-13	-27	-15	-16
	-6	-21	13	-22	1	-24

주: 각 품목별로 상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하단은 전월대비 증가율임.  
 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수입의 경우 천연가스 및 원유의 수입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급반전하였으며, 의류 품목의 경우 수입이 급감하고 석탄, 철강관 등의 감소세가 지속됨.

표 2. 품목별 수입증가율

(단위: %)

	2008			2009		
	10	11	12	1	2	3(잠정)
총액	-9	18	28	46	45	-41
원유	-9	-20	-8	-6	-9	-32
	-15	26	67	84	94	-76
반도체	-18	-21	-24	3	-19	-58
	12	50	63	60	60	-29
컴퓨터	-12	-29	-21	17	-10	-18
	16	51	71	67	57	-40
석유제품	-1	-25	9	-5	-11	-22
	-15	59	74	159	55	-30
천연가스	-44	-41	-6	-8	40	-11
	-36	-43	-16	-39	0	2
철강관	3	44	-7	47	-38	-34
	-39	-19	-18	5	38	-17
석탄	-18	-22	-6	-7	-19	-15
	-52	-57	-53	-37	-27	33
정밀화학	8	0	5	-22	-19	-34
	-12	-1	27	67	61	-42
원료	-8	-15	-19	-17	-4	-24
	-3	-3	5	53	44	-41
계측제어기기	-2	-8	3	-36	5	-33
	32	38	27	37	42	-26
의류	-12	-38	-15	38	-38	-9

주: 각 품목별로 상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, 하단은 전월대비 증가율임.  
 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용도별로는 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의 수입이 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소폭이나마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줄어드는 점이 우려됨.

-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 감소는 국내에서의 생산 및 설비 투자 감소로 연결될 수 있으며, 이는 향후 국내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
마. 주요국 및 경제권별 요인

■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 전 지역에서 감소되는 가운데 최근 대양주, 중남미, 중동,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, 수입의 경우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가 지속됨.

■ 중국·홍콩에 대한 무역수지는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, 중동·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
3. 향후 전망

가. 세계경제 전망

■ 2009년 미국,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개도국 역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 이후에나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됨.

-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對 개도국 수출이 2009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

표 3.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(단위: %)

	2008	2009		2010	
		IMF	OECD	IMF	OECD
전세계	3.2	-1.0 ~ -0.5	-0.4	1.5 ~ 2.5	1.5
선진국	0.8	-3.5 ~ -3.0	-4.3	0.0 ~ 0.5	-0.1
미국	1.1	-2.6	-4.0	0.2	1.6
일본	-0.7	-5.8	-6.6	-0.2	0.6
유로지역	0.9	-3.2	-4.1	0.1	1.2
개도국	6.1	1.5 ~ 2.5		3.5 ~ 4.5	
중국	9.0	6.7	8.0	8.0	9.2

자료: IMF(2009년 3월 발표, 중국은 1월), OECD(2009년 4월 발표, 전세계는 OECD 국가).

- 2009년의 세계 교역량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.

표 4. 세계 교역량 전망

		2007	2008	2009	2010
무역	전세계	7.2	4.1	-2.8	3.2
	수입	선진국	4.5	1.5	-3.1
	개도국	14.5	10.4	-2.2	5.8
수출	선진국	5.9	3.1	-3.7	2.1
	개도국	9.6	5.6	-0.8	5.4

자료: IMF(2009년 1월).

### 나. 환율 전망

- 원/달러 환율은 상반기 불안정한 상황이나, 하반기에 점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원/달러 환율은 상반기에 1,300~1,400원에서 움직이고, 하반기에는 1,100~1,200원을 기록하여 연평균 1,20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.

표 5. 2009년 환율 전망(2009년 3월 전망치)

	상반기 평균	하반기 평균	연평균
LG경제연구원	1,385	1,175	1,280
삼성경제연구원 <sup>1)</sup>	1,380	1,124	1,216
글로벌 인사이트	1,457	1,381	1,419
현대경제연구원			1,250
UBS <sup>2)</sup>			1,350 ~1,450
크레디스위스			1,425
JP모건 <sup>2)</sup>			1,200
2008년	986	1,214	1,100

주: 1) 2009년 2월 전망치임.  
2) 연말 환율 예측치.

- 무역수지 흑자는 약 180억~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, 무역수지 흑자도 환율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하반기 들어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접근하면서 수입 감소율이 둔화되면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현재의 수준(월간 30~40억 달러)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다. 유가 전망

- 2009년 유가는 2008년에 비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.
- 세계경제침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배럴당 50~6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.
- 단,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달러화 및 주요 통화의 가치 하락은 향후 유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
표 6. 2009년 유가 전망

기관(전망시점)	2009년 연평균	비고
에너지경제연구원(1월)	41~52달러	-
삼성경제연구소(2월)	56.4달러	-
CERA(2월)	53.25달러	공급 부족 시 최고 70달러 예상

주: CERA(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).

## 4. 시사점

- 비록 수출입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나타난 무역수지 흑자이나,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무역수지의 흑자구조 유지는 중요하며, 따라서 최근의 무역수지는 환영할 만함.
- 최근에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등 널뛰기 현상을 보인 주된 요인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변화에 따른 추세적 반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시기상조임.
- 무역수지 흑자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으로 연결되어야
-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생산 및 투자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임.
- 기업경기실사지수(BSI: Business Survey Index)는 2008년 4/4분기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09년 1/4분기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음. 특히, 설비투자 및 고용의 경우 2009년 1/4분기에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.

- 무역수지 흑자가 R&D 및 설비투자 확대에 이어지면서 실물 경기 회복을 통해 수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로의 변환이 필요함.
-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및 M&A 활성화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환경문제와 연계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친환경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.
- 친환경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술·연구개발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.
- 친환경 녹색성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비교우위 선점에 활용하고, 환경이슈와 연계하여 수입을 규제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.
-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도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악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.
- 최근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에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급감과 수출 감소율 완화 등 환율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, 이는 환율 급등 폭이 워낙 컸던 것으로 환율효과 자체의 크기가 증가한 것은 아님.
- 기간에 따라서는 환율상승이 수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, 수출축진을 목적으로 한 환율정책의 유효성이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됨.
- 외환시장 규모의 확대, 외환거래의 다양화 등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우리나라 무역수지에서 자원부국, 개도국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FTA 및 ODA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G-20 등 국제무대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 **KIEP**